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Career Wive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全 英 子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inversity

Doctoral Course : Young Ja Jeon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3. 척도의 구성
II. 이론적 배경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스트레스의 개념	5. 자료의 분석방법
2. 스트레스 모델	IV. 연구결과 및 해석
3. 스트레스원(역할갈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 대처방안	2.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5. 심리적복지	3. 가설검증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결 론
1. 연구의 모형 및 변수의 설정	참고문헌
2. 연구문제 및 가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or(role conflict),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ward dual-career wive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17 dual-career wive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tressor level of dual-career wives was slightly over the mid-point scores, 2.5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relatively high. Also, the degree to which dual-career wives used coping strategies was relatively high.

2) Role conflicts were nega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 3) Coping strateg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 4) The degree of the negative influence which role conflicts had on psychological well-being was lower in the group using a high degree of coping strategies than in the group using a low degree of coping strategies.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산업화 현상과 더불어 많은 여성들이 가정내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로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수요가 증대되어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외에도 여성 교육기회의 증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교육과 훈련받은 것을 직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지위도 향상되는 등의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중다역할 수행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전문직은 오랜 기간의 수련을 거쳐 획득한 체계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높은 직업적 책임감과 경쟁이 요구되는 직종이다(Gupta & Jenkins, 1985; Rapoport & Rapoport, 1971; Sekaran, 1986).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직업에 몰두할 것이 기대된다. 직업몰두의 특성과 가정생활의 요구로 인해 전문직 취업주부는 역할긴장과 역할갈등이 생활에 내재되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Hall(1972)은 취업주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특정 역할내에서 부딪히는 문제보다는 다중역할에서 비롯되는 역할갈등이며 이러한 역할갈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Pearlin과 Schooler(1978)의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역할긴장을 스트레스 과정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긴장은 역할과 경험된 역할과중 사이의 갈등

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개념화 되고 있다. 전문직 취업주부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중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로서 많은 연구들이 직업-가족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다(Greenhaus, 1988; Kline & Cowan, 1988; Schwartzberg & Dytell, 1988; Burke, 1988; Greenhaus & Parasuraman, 1986; Voydanoff & Kelly, 1984; Crossman, 1984).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유기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에 대한 추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이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주부의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Baruch, Biener & Barnett, 1987; Crosby, 1987; Voydanoff, 1988), 또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Bird & Ford, 1985; Bird & Bird, 1986; Elman & Gilbert, 1986; Gilbert, Holahan & Manning, 1981).

이러한 연구의 경향과 관심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복지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혼취업여성의 수는 현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이 늘어감에 따라 전문직 취업주부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주부는 직업역할 뿐 아니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취업

주부의 전반적인 정서적 평형상태인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주부 자신의 심리적복지에 관련되며 나아가서 가족 전체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실적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스트레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스트레스와 대처, 또는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하여 검토되었을 뿐이며(강수금, 1987; 강인, 1989; 김명자, 1991; 김영규, 1980; 김영미, 1990; 김정옥, 박순희, 조외점, 1989; 김정옥, 이광주, 1988; 배종열, 1985; 이광주, 1988; 이영희, 1985; 장병옥, 1985; 전성혜, 1989; 전세경, 1988; 정민자, 1984; 정태경, 1972; 채기화, 1989), 이를 정신건강이나 심리적복지와 관련시킨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McGrath(1970)는 스트레스 개념을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반응 중심의 스트레스 정의로서 이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정반응 또는 반응군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이 개념은 주로 생물학 및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스트레스를 종속 변수 즉, 자극원(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상황중심의 스트레스 정의는 스트레스 유발조건(자극원)을 포함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셋째, 유

기체-환경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서 이 개념은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근원을 심리적 과정에 두고 있다.

한편 Lazarus(1984)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극 모델, 반응모델, 상호작용모델의 세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자극이나 내적 요인 즉, 사람과 환경간에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특성을 가진 자극을 의미하며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개인, 사회,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한다고 했다. 셋째, 상호관계로서의 스트레스는 위 두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개인의 인지현상과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전개시켰다. 이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스트레스는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 또는 자극으로서의 개념, 상호작용과정 또는 매개체로서의 개념, 그리고 반응 또는 결과로서의 개념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스트레스 모델

1) Hill의 ABCX 모델

Reubin Hill은 전쟁중의 별거와 재결합에 관한 가족 스트레스를 연구하여 ABCX라는 이론적인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가족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Hill, 1949). 이 모델은 4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A요소는 스트레스 사건, B요소는 가족의 위기 대처자원, C요소는 사건에 대한 가족의 주관적 지각, 그리고 X요소는 위기로서 설명한다. 즉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A) 가족들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의 여부 (B), 이 사건을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C) 가족의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위기로 몰고갈 수도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이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은 A, B, C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X요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2) Double ABCX 모델

이 모델은 Hill의 ABCX모델에 위기후 변수를 첨가하여 이를 위기의 결과로부터 적응의 연속선상으로 옮긴 것으로서 이 모델의 쫓점은 위기후 상황에 있다. 즉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누적된 생활 스트레스와 긴장, 가족내 자원과 사회적 자원들, 위기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이 부여하는 정의와 의미의 변화, 그리고 건전한 결과(순적응)로부터 불건전한 결과(부적응)에 이르는 광범위한 적응등이 그것이다.

이 모델에서 Hill의 A요인은 스트레스의 축적이 되어 aA요인이 된다. 이러한 축적된 스트레스나 요구는 처음의 스트레스와 요구, 후속되는 곤경, 규범적 전환, 이전의 긴장, 가족의 대처 노력의 결과, 그리고 모호성 등에 의해 생긴다. bB요인은 개별 가족구성원과 가족단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자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자원과 새로운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역할융통성, 통합성, 확장된 자원, 개발된 자원, 친척, 친구, 확대가족, 교회,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지원 등을 말한다. cC요인은 처음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추가된 스트레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을 균형된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문제의 명료화, 위기상황에 대한 정서적 소모의 감소, 가족원들간의 격려등이 포함된다.

Hill의 ABCX 모델에서 X요인은 가족체계에 초래되는 위기의 양으로서 가족의 일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변수이다. Double ABCX 모델에서 xX요인은 개인체계, 가족체계, 지역사회체계의 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데 여기서 적응이란 개인과 가족사이, 가족과 지역사회 사이에 요구와 능력간의 균형을 이루고 응집력을 갖는 것이다. 가족통합이 유지, 강화되고 가족이 발전하며 또한 가족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환경의 영향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면 이를 순적응이라 한다. 반면 가족통합이 약화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이나

발달의 약화, 가족 전체의 복지의 약화, 가족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이를 부적응이라 한다.

이상에서 스트레스 연구의 이론모델인 Hill의 ABCX 모델과 McCubbin과 Patterson의 Double ABCX모델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을 기초로 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ll의 ABCX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McCubbin 등의 Double ABCX모델을 병합하여 이론적 모델을 설정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의 세가지 변수들인 스트레스원(역할갈등), 대처방안, 그리고 심리적복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3. 스트레스원(역할갈등)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사회적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된 사건과 어려움 등에 쫓점을 두고 사회적 문제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왔다(McCubbin et al., 1980). 그러한 사회적 관심분야 중의 하나가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직업-가족 갈등에 관한 것이다(Rapoport & Rapoport, 1978; Skinner, 1983). 그런데 직업-가족 갈등은 어떤 면에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직업상황과 가족상황으로부터 나오는 역할압박이 있기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Kopelman, Greenhaus, Connelly(1983)는 직장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의 역할갈등과 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의 모델에서 직업갈등은 직업영역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양립할 수 없는 역할압력의 정도로서, 그리고 가족갈등은 가족내에서 경험하는 양립할 수 없는 역할압력의 정도로서 규명되었으며, 역할간 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역할로부터의 압력과 양립할 수 없는 한 역할내의 압력의 정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역할갈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크게 역할 양립불가능(role incompatibility)과 역할방해(role interference), 그리고 역할과중(role overload)에 쫓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구혜령, 1991).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직업-가족 갈등의 세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시간갈등이란 한가지 역할에서 요구되는 시간이 다른 역할의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의 갈등을 말하고, 둘째, 긴장갈등이란 한 역할에서 발생된 스트레스 증상이 다른 역할에 침투된 경우의 갈등이며, 셋째, 행동갈등이란 한가지 역할에서는 기능적인 행동이 다른 역할에서는 역기능적인 경우의 갈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편 Greenhaus & Parasuraman(1986)은 직업과 직업외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긴장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직업스트레스와 직업외 스트레스는 누적되어 긴장을 산출할 것이다. 둘째, 한가지 역할내에서의 긴장이 다른 역할에도 침투되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직업과 가족에서의 양립 불가능한 요구와 기대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으로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변수들로는 생활사건과 변화, 가족전이, 역할갈등, 역할과중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과 관련시킨 연구들은 스트레스원으로서 역할갈등이나 역할과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원으로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4. 대처방안

1970년대 이후에 가족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그 관심이 "위기"로부터 "대처"로 달라진 것이다. 모든 가족들은 정상적인 발달상의 스트레스 사건들이나 질병, 사고, 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구조상 복잡한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역할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이에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대처는 가족이 위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그리고 위기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설명되어 왔다(McCubbin, 1979). Pearlin 과

Schooler(1978)는 대처란 정서적 다스트레스를 제거,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은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비규범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했다.

Olson, McCubbin(1983) 등은 가족의 대처전략을 내적 전략과 외적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내적 전략에는 스트레스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정의하는 재구조화 전략과 스트레스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수동적 평가전략이 있고, 외적 전략에는 확대가족원,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 전략, 정신적 지원 찾기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원을 동원하는 전략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부부 가족이 경험하는 긴장의 유형과 정도는 일반 가족과는 다르고 따라서 이들이 채택하는 대처전략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Bebbington(1973)은 취업부부 가정의 생활유형에서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낙관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취업주부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가족체계내에서의 대처행동과 가족외부지원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kinner, 1983).

우선 가족체계내에서의 대처행동으로서 Poloma(1972)는 전문직 취업주부가 사용하는 4가지 긴장관리 테크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업한 것이 안한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갈등을 감소시킨다. 둘째, 자신의 역할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둔다. 셋째,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가능한 한 구획화 하는 것으로서 직업과 관련된 문제는 집에 가져오지 않는다. 넷째, 직업열망과 다른 역할 요구들을 절충함으로써 긴장을 관리한다 등이다.

또한 우선순위 결정하기와 타협하기는 역할들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역할들

내에서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인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으로 인한 역할과중은 의도적으로 가사 수행표준을 낮추거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생각되었던 일들을 남편과 자녀에게 분배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McCubbin, 1979). Holmstrom(1973)의 연구에서는 취업부부들이 잘 짜여진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으며 특히 주부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 분배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취업부부 가족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족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는 대처전략도 사용한다. Holmstrom(1973) 연구 대상자들은 역할과중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사용했는데 특히 자녀양육을 위해 고용인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도 역시 최소자원이므로 가사조력자를 고용하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정기기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poport & Rapoport(197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하나로 친구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주로 부부 단위로 다른 취업부부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으며 이들의 교제는 오락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호 서비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규범적 측면에서 이들은 취업부부 생활스타일을 정당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결국 호혜적 지원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작업환경을 바꾸기 위한 협상적 대처방안도 사용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융통성 있는 스케줄, 일의 분담,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생활유형의 장·단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즉 많은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지만 개인의 만족이라든가 생활수준의 향상, 성취에 대한 자부심 등의 이점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취업부부의 생활유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Rapoport & Rapoport, 1976).

취업부부의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대처 노력이 중다스트레서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다. Double ABCX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스트레서에 특정 대처방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노력이 포함되며 완전한 대처방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cCubbin & Patterson, 1983).

이상에서 일반적인 대처방안들과 특히 취업부부가 사용하는 대처방안을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대처방안들은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결국 전반적인 심리적 평형상태인 심리적복지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inner(1983)가 취업주부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제시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대처행동과 가족외부의 지원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대처방안의 사용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라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5.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N. Rescher(1970)는 복지라는 것이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복지(건강), 물리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복지(정신적 안정, 정신위생)이라 했다.

한편 Wan, Odell & Lewis(1982)는 인간의 복지를 사회적 복지, 심리적복지, 신체적복지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복지의 세 영역은 개념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보면 이들 복지의 지표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Wan, 1976).

이와같이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개념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므로 그 측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의 지표가 되는 여러 이론적 구조를 따라 측정된다. 즉, 중후군과 같은 객관적 측정과 정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합쳐져서 심리적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쓰인다. 정신건강의 주관적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자기평가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Andrews & Withey, 1973; Bradburn, 1969; Robinson & Shaver, 1973; Wan, 1976).

여러 복지영역의 대표적 지표들로는 자아존중감(Andrews & Withey, 1974, 1976; Schmitt & Bedeian, 1982), 결혼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직업만족도(Chacko, 1983; Near, Smith, Rice & Hunt, 1984; Martin & Schermerhorn, 1983), 우울(Harter, 1984), 생활만족도(Cowan & Cowan, 1988b), 생활의 질(Levine, Taylor & Davis, 1984)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인의 자아존중감만을 조사하여 가족복지의 지표로 사용한 Haw(1982)와 Pistrang(1984)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중다역할요구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Schwartzberg 와 Dytell(1988)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두 집단은 심리적 복지에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스트레스는 복지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특히 비취업주부의 경우 가족역할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의 상당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족역할이 그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가족역할이 직업역할과 결합된 경우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또 논의가 되고 있다.

여성들이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연구들은 가정하고 있으며(Barnett & Baruch, 1987),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Dytell & Schwarzberg, 1986; Stewart & Salt, 1981). 부모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확립된 자녀가 있거나 많은 수의 자녀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re & Mangione,

1983; Pearlin, 1975; Voydanoff, 1987). Barnett 과 Baruch(1985)도 엄마의 역할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역할과중과 부적 심리적 복지에 관련된다 고 했다.

취업주부의 심리적 복지 상태를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Thoits(198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우울 점수가 낮게 나왔고, Baruch & Barnett(1986) 그리고 Kessler & McCrae(1981)의 연구결과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Aneshensel 과 Pearlin(1987)은 우울증에 있어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한편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다 가진 경우 두 가지의 중요한 사회관계망에 접하게 되므로 사회적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원천들이 된다고 한 연구결과들도 있다(Gove & Tudor, 1973; Thoits, 1984). 이는 가정주부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가지므로 대안이 없어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Thoits, 1984).

Aneshensel(1986)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스트레스를 사회적 역할들에 대해 생기는 내면적인 것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역할 또는 역할들이 힘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할들 그 자체라기 보다는 역할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Schwartzberg & Dytell, 1988).

이와같이 기혼여성이 취업함으로써 생기는 중다역할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Kline과 Cowan(198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직업-가족 역할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 연구에서 Kline과 Cowan(1988)은 취업이유, 부부관계, 성별, 가족생활주기를 매

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중재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대체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한 주부는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왔지만(Sekaran, 1983; Warr & Parry, 1982)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Fuchs, 1971; Safilios-Rothschild, 1970). 반면 자발적으로 취업한 경우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나 부모만족도도 높게 나왔다(Moen, 1982; Ross, Mirowsky & Huber, 1983). 또한 남편이 취업한 부인에게 심리적 지원과 실제적 지원을 제공할 때 부인의 자아존중감(Sekaran, 1983), 부부역할만족도(Houseknecht & Macke, 1981; Moore et al., 1984; Sraines, Pleck, Shepard & O'Connor, 1978; Thomas, Albrecht & White, 1984), 가족역할만족도(Cowan & Cowan, 1987), 직업만족도가 모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의 관계를 매개변수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의 여러 지표들 중에서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우울, 불안을 하위영역으로 하여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의 세가지 하위변수 각각과의 관계를 밝혀보고, 또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라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모형 및 변수의 설정

이제까지 스트레스의 개념과 스트레스 연구의 이론적 모델, 그리고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세가지 주요 변수인 스트레스원(역할갈등)과 대처방안, 심리적복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았다.

가족스트레스의 이론적 모델로서 Hill의 ABCX 모델과 McCubbin의 Double ABCX 모델을 고찰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Hill의 ABCX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ABCX 모델에서 A요인인 스트레스원은 전문직 취업주부 가족의 생활패턴에 내재되어 있는 역할갈등들로서 부부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 등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B요인인 가족의 대처자원과 C요인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 및 평가를 합하여 대처방안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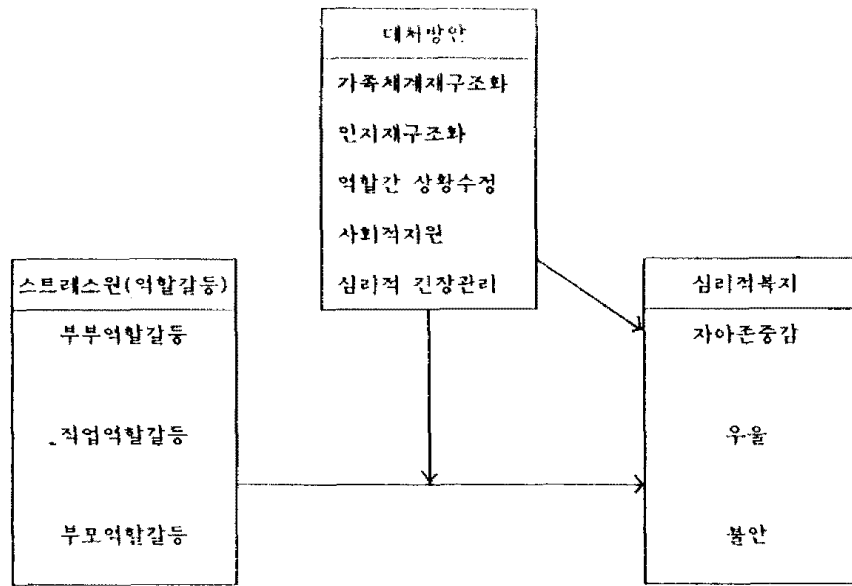
X요인인 위기상황은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방안등을 사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에서, 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인 심리적복지로 구성하였다. Veit와 Ware(1983)의 정신건강 구조를 보면 정신건강은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와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긍정적 상태는 심리적복지로 부정적 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나타낸다. 그러나 심리적복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연속선상의 양쪽 부분을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낮은 심리적복지 상태란 바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Veit와 Ware도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는 심리적복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긍정적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개념인 우울과 불안을 포괄하여 사용했다.

가족스트레스의 이론적 모델과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원(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 대처방안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 대처방안의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원(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 스트레스원(역할갈등) 및 대처방안 각각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역할갈등은 심리적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역할갈등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역할갈등은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 대처방안은 심리적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3]대처방안은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2)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우울의 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3)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불안의 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3.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스트레스원

(역할갈등)척도, 대처방안척도, 심리적복지척도,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구성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원(역할갈등) 척도

스트레스원 척도로서는 전문직 취업부부의 역할갈등을 측정한 Bird(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할갈등 척도는 부부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취업주부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생기는 역할간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으로 묶여졌는데 그 중 2개 문항은 그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묶여져서 이를 제외시키고 3개 요인 20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했는데 부부역할 갈등척도는 .90이 나왔고, 직업역할 갈등척도는 .78이었으며 부모역할 갈등척도는 .80으로 나타났다.

2) 대처방안 척도

대처방안 척도는 Skinner와 McCubbin이 1981년에 만든 취업부부 대처방안척도(DECS : Dual

Employed Coping Scal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가 둘 다 취업한 경우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처행동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취업부부가족의 생활패턴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DECS는 총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분석을 통해 상관의 정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45개 문항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를 인지재구조화 영역, 가족체계재구조화 영역, 역할간 상황수정 영역, 심리적 긴장관리 영역, 사회적 지원 영역으로 나누고,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인지재구조화 영역은 값이 .89, 가족체계재구조화 영역은 .90, 역할간 상황수정 영역은 .90, 심리적 긴장관리 영역은 .86, 그리고 사회적 지원 영역은 .91로 나왔다.

3) 심리적복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복지 척도는 3개의 하위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Pearlin과 Schooler (1978)의 자아존중감 척도 11문항, Derogatis, Rickels & Rock의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중에서 우울척도 10문항, 불안척도 10문항을 추출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척도의 계수가 .82, 우울척도는 .90, 그리고 불안척도가 .90으로 나왔다.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남편과 자녀가 있는 전문직 취업주부로 하였다. 전문직의 범위는 Theodore (1971)의 분류기준에 따라 교수, 법관, 의사, 교사, 약사, 간호사의 6개 직업으로 한정하였다. 법관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모두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다른 직종에 비해 표본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주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취업주부로 조사했으나, 약사의 경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대부분 미혼이었기 때문에 주로 개업한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는 6개의 대학에서 표집

하였고, 교사는 2개의 여자고등학교에서 임의로 표집하였다.

1991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총 133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2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에서 내용의 기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총 117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약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으며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미리 전화를 걸고 조사자가 직장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며칠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5.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으며 스트레스원(역할갈등)척도와 대처방안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했다. 그리고 역할갈등(스트레스원), 대처방안 및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했으며,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의 종속변수인 심리적복지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역할갈등은 평균이 2.75 점으로 중간점인 2.5점보다 조금 높게 나왔으며, 직업역할갈등은 평균 2.94로서 부부역할갈등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한편 부모역할갈등은 평균이 2.98로서 세가지 역할갈등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문직 취업주부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직업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7)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연 령	29세 이하	22	18.8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46	39.3
	30-39세	51	43.6		6-10년	22	18.8
	40-49세	35	29.9		11-15년	17	14.5
	50-59세	8	6.8		16-20년	19	16.2
	60세 이상	1	0.9		21년 이상	13	11.1
교육수준	전문대졸	10	8.5		직 업	교수	21
	대졸	60	51.3	교사		23	19.7
	대학원이상	47	40.2	약사		22	18.8
취업년수	5년 이하	30	25.6	간호사		20	17.1
	6-10년	39	33.3	의사		21	17.9
	11-15년	21	17.9	법관		10	8.5
	16-20년	17	14.5	종 교		없음	33
	21년 이상	10	8.5		불교	16	13.7
자녀수	1명	52	44.4		기독교	39	33.3
	2명	49	41.9		천주교	26	22.2
	3명	14	12.0		기타	3	2.6
	4명 이상	2	1.7	취학전연령 자녀	없음	52	44.4
가족형태	핵가족	91	77.8		있음	65	55.6
	확대가족	26	22.2	가사조력자	없음	29	24.8
가사조력자 형 태	가정부	64	71.1		있음	88	75.2
	시어머니	10	11.1	월평균소득	49만원이하	1	0.9
	친정어머니	9	10.0		50-99만원	55	47.0
	여타친척	6	6.6		100-149만원	31	26.5
	기타	1	1.1		150-199만원	14	12.0
남편의 월평균 소득	49만원이하	1	0.9		200-249만원	7	6.0
	50-99만원	32	27.4		250만원이상	9	7.7
	100-149만원	39	33.3	역할갈등으로써 부모역할갈등과 그 수준이 비슷 하나 약간 낮은 정도이고, 부부역할 수행상의 갈 등이 다른 역할 수행상의 갈등보다는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가족 갈등 중에서도 부모역할갈등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한 Schwartzberg와 Dytell(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150-199만원	25	21.4				
	200-249만원	11	9.4				
250만원이상	8	6.8					

표 2. 전문직 취업주부의 영역별 역할갈등의 정도 (N=117)

	평균	표준편차
부부역할갈등	2.752	0.663
직업역할갈등	2.936	0.431
부모역할갈등	2.979	0.500

2) 전문직 취업주부의 대처방안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 취업주부들의 대처방안 사용정도는 척도의 중간점인 2.5 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 전문직 취업주부의 영역별 대처방안 사용정도 (N=117)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긴장관리	3.178	0.792
인지재구조화	3.608	0.574
역할간상황수정	2.880	0.805
가족체계재구조화	3.355	1.006
사회적지원	3.446	0.580

이를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인지재구조화 방안의 사용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적 지원 방안이며 역할간 상황수정 방안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재구조화 방안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보다 직업을 가진 것이 나를 더 좋은 엄마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나가는 우리 가족의 생활방식에 대해 나쁜 점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생각한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대처방안으로써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안은 사회적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를 돕거나 자녀를 보살펴 줄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가사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다” 등과 같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서의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가족 외부로부터 구하는 방안을 말한다.

세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안은 가족체계 재구조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나누어 한다.” “내가 직장일로 바쁠 때는 남편이 내가 할 집안 일을 대신 해 준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이나 역할분담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가정 내의 역할을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담하는 방안을 말한다.

심리적긴장관리 방안은 “다른 맞벌이 부부들과 교체한다.”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가사노동 수행에 관한 기준을 낮춘다.” 등과 같이 확대가족원이나 친구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얻는다거나 가사노동에 관한 표준을 낮춤으로써 심리적으로 긴장을 줄이

고 마음의 평형을 얻기 위한 방안이다.

본 연구의 전문직 취업주부들이 채택하는 대처 방안 중 가장 그 사용정도가 낮은 것은 역할간 상황수정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직업에 덜 몰두한다.” “가정의 주요 변화가 직장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운다.” 등과 같이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상황을 조정함으로써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까지 연장되거나 또는 가족역할이 직업역할에 연장되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3) 전문직 취업주부의 심리적복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의 정도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4. 전문직 취업주부의 심리적복지 경향

(N=117)

	평균(X)	표준편차(SD)
자아존중감	3.61	0.51
우울	3.92	0.69
불안	3.91	0.66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평균값이 3.61로써 중간값인 2.5점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다역할 요구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취업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Haw(1982)와 Pistrang (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울의 정도는 평균값이 3.92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반대방향으로 부호화하여 나온 값이므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전문직 취업주부의 우울 수준은 매우 낮으며 심리적복지의 정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우울증의 정도가 덜 하다고 한 Thoits(198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불안의 정도도 평균값이 3.91로서 우울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역시 반대 방향으로 부호화하여 나온 값이므로 역으로 해석하면 전문직 취업주부의 불안 수준은 낮고 심리적복지의 정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취업주부의 심리적복지의 하위 영역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높은 편이며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설검증

1)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역할갈등은 심리적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 1로부터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역할갈등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역할갈등은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역할갈등의 각 영역들과 심리적복지의 하위 척도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우울,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변수의 모든 영역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문제 1에 따른 가설 1-1, 1-2, 1-3은 모두 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중다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Crossman(198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2) 대처방안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대처방안은 심리적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라는 연구문제 2로부터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3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처방안과 심리적복지 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이러한 가설은 Crossman(1984)이나 Stewart(1988)등의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둔 것이다.

(가설 2-1)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6. 대처방안 사용정도와 심리적복지 간의 상관관계 (N=117)

변 수	자아존중감	우 울	불 안
심리적긴장관리	0.1256	-0.2767**	-0.2080*
인지재구조화	0.2900**	-0.2069*	-0.1600*
역할간상황수정	-0.0462	0.1403	0.0895
가족체계재구조화	-0.1204	0.0993	0.0971
사회적지원	-0.0369	0.0535	0.1330

*p<0.05 **p<0.01

위 표에서 보면 대처방안의 각 영역들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인지재구조화 방안과 자아존중감 간에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다른 대처방안들과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은 다른 어떤 대처방안보다도 취업주부 자신이 선택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재평가를 내리는 인지재구조화 방안만이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긴장관리 방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수는 -0.2767로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인지재구조화 방안과 우울 간에도 r=-0.2069(p<0.0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은 이 두가지를 제외한 다른 대처방안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변 수	자아존중감	우 울	불 안
부부역할갈등	-0.2540**	0.3842***	0.3863***
직업역할갈등	-0.1998*	0.2469**	0.3270***
부모역할갈등	-0.2807**	0.4201***	0.4472***

*p<0.05 **p<0.01 ***p<0.001

이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우울의 정도는 심리적긴장관리 방안이나 인지재구조화 방안 등 정서적,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방안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고 보겠다.

위 표를 보면 심리적긴장관리 방안과 불안 간의 상관계수가 -0.2080 으로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고 또한 인지재구조화 방안과 불안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 ($r = -0.1600, p < 0.05$)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방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대처방안은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 3으로부터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2)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우울의 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3)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불안의 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인 대처방안의 5개 하위영역 각각의 평균을 구하여 대처방안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대처방안의 사용수준을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집단에서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어느 집단에서 상관의 정도가 더 높은지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대처방안의 사용수준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종속변수인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위의 표 7부터 표 11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할갈등상향수정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부모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와 사회적지원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부부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만 이러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은 경우 두 변수 간의 부적 상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경우들은 모두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낮아져서 가설 3-1은 대체로 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심리적긴장관리방안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심리적긴장관리 방안 사용정도					
	낮음(N=51) 높음(N=65)		낮음(N=51) 높음(N=66)		낮음(N=51) 높음(N=66)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부부역할갈등	-0.3552**	-0.1189	0.5188***	0.2253	0.4837***	0.2535*
직업역할갈등	-0.3103**	-0.0582	0.3051**	0.1852	0.3805***	0.2616*
부모역할갈등	-0.3245**	-0.2331*	0.5174***	0.3111*	0.5296***	0.351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인지재구조화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인지재구조화 방안 사용정도					
	낮음(N=55) 높음(N=62)		낮음(N=55) 높음(N=62)		낮음(N=55) 높음(N=62)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부부역할갈등	-0.3246**	-0.1457	0.4443***	0.2764*	0.4909***	0.2302*
직업역할갈등	-0.2329*	-0.1300	0.2628*	0.1924	0.3668**	0.2566*
부모역할갈등	-0.2563*	-0.1985	0.4435***	0.3132**	0.4922***	0.3324**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의 사용정도					
	낮음(N=64) 높음(N=53) 자아존중감		낮음(N=64) 높음(N=53) 우울		낮음(N=64) 높음(N=53) 불안	
부부역할갈등	-0.2844*	-0.2685*	0.3567**	0.3906***	0.4535***	0.3246**
직업역할갈등	-0.2861*	-0.1577	0.3324**	0.1255	0.2519*	0.3932**
부모역할갈등	-0.2099	-0.3687***	0.4363***	0.3877***	0.4574***	0.4305***

*p<0.05 **p<0.01 ***p<0.001

표 10. 가족체계재구조화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가족체계재구조화 방안의 사용정도					
	낮음(N=48) 높음(N=69) 자아존중감		낮음(N=48) 높음(N=69) 우울		낮음(N=48) 높음(N=69) 불안	
부부역할갈등	-0.3395**	-0.2082*	0.4893***	0.3103**	0.4101	0.3769***
직업역할갈등	-0.2876*	-0.1485	0.4452***	0.1235	0.4400***	0.2520*
부모역할갈등	-0.4495***	-0.1785	0.6767***	0.2315*	0.5516***	0.3645***

*p<0.05 **p<0.01 ***p<0.001

표 11. 사회적지원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상관관계 (N=117)

	사회적지원방안의 사용정도					
	낮음(N=55) 높음(N=62) 자아존중감		낮음(N=55) 높음(N=62) 우울		낮음(N=55) 높음(N=62) 불안	
부부역할갈등	-0.2365*	-0.2804*	0.4393***	0.3197**	0.4194***	0.3392**
직업역할갈등	-0.2815*	-0.1196	0.2224*	0.2645*	0.3208**	0.3241**
부모역할갈등	-0.2989**	-0.2618*	0.3710***	0.4666***	0.4254***	0.4572***

*p<0.05 **p<0.01 ***p<0.001

한편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는 역할간상황수정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부부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사회적지원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 각각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서만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역할갈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을 뿐이며 다른 경우들은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정적 상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3-2는 대체로 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역할갈등과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직업역할갈등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가 역할간상황수정 방안과 사회적지원 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을 때 더 낮게 나오므로써 대처방안은 역할갈

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 또는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 3-3은 대체로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완화시켜 주는 상호작용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

앞에서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역할갈등 변인과 인지재구조

표 12.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 (N=117)

변인	B	β	T	Sig T
부부역할갈등	-.15185	-.19711	-2.183	.0311
인지재구조화방안	.21728	.24407	2.703	.0079
회귀상수	3.24471			
R ²	.12084			

표 13. 취업주부의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N=117)

변인	B	β	T	Sig T
부부역할갈등	.22795	.21921	2.307	.0229
부부역할갈등	.38190	.27670	2.900	.0045
심리적긴장관리방안	-.19347	-.22231	-2.728	.0074
회귀상수	5.07335			
R ²	.26198			

표 14. 취업주부의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N=117)

변인	B	β	T	Sig T
부부역할갈등	.20284	.20457	2.141	.0345
부부역할갈등	.42212	.32057	3.342	.0011
심리적긴장관리방안	-.12383	-.14923	-1.821	.0713
회귀상수	5.33597			
R ²	.25350			

화 대처방안만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인지재구조화 방안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들 두개의 변인에 의하여 자아존중감은 12.1%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한편 종속변수인 취업주부의 우울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역할갈등 변인, 부모역할갈등변인, 그리고 심리적긴장관리방안이 영향력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부부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심리적긴장관리방안을 사용함에 따라 우울의 정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직업역할에의 몰두라는 특성이 있는 전문직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역할보다는 부부

역할이나 부모역할 등 가족역할에서 느끼는 갈등이 우울의 정도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나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여성의 심리적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Dytell & Schwarzberg(1986)나 Stewart & Salt(198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직 취업주부의 불안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영향력있는 독립변수들을 찾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즉 우울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부부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 그리고 심리적긴장관리 방안이 유의한 변수들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부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역할갈등이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는 높아지며 심리적긴장관리 방안을 사용할수록 불안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취업주부의 불안의 정도는 이들 세 변수에 의해 25.3%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이상에서 종속변수인 심리적복지의 세가지 하위척도로서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갈등과 대처방안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역할갈등 중에서는 부부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이, 그리고 대처방안 중에서는 심리적긴장관리 방안과 인지재구조화방안이 심리적복지의 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중다역할갈등 중에서도 특히 가족역할 수행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Anderson-kulman & Paludi, 1986; Barnett & Baruch, 1987; Schwarzberg & Dytell, 1988).

또한 취업주부들이 중다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 중에서는 심리적긴장관리방안과 인지재구조화방안만이 심리적복지를 설명하는 영향력있는 변수임이 밝혀졌으며 역할간상황수정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그리고 사회적지원방안 등은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ill의 ABCX 모델에서 B요인 즉 가족의 대처자원에 해당되는 역할간상황수정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사회적지원방안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게 나왔고 반면에 C요인 즉, 스트레스원(역할갈등)에 대한 지각 및 평가에 해당되는 심리적긴장관리방안과 인지재구조화방안은 종속변수인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온 것으로 요약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산업화 현상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취업주부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안, 그리고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에 관해 다룬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우가정내의 역할만을 강요받아 왔으나 오늘날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해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결혼 후에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양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고학력을 가진 전문직 취업주부의 양적증가현상은 점차 주목을 받게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중다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유기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에 대한 추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이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주부의 중다역할 수행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관심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부 자신의 심리적복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복지에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주부 자신의 심리적복지에 관련되며 나아가서 가족 전체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과제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역할갈등), 대처방안 및 심리적복지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17명의 전문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문직 취업주부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직업역할갈등으로써 부모역할갈등과 그 수준이 비슷하나 약간 낮은 정도이고, 부부역할수행상의 갈등이 다른 역할 수행상의 갈등보다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직 주부들의 대처방안 사용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인지재구조화방안, 사회적지원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심리적긴장관리방안,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복지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높게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는 낮게 나왔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이나 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갈등이 높으면 심리적복지는 낮아질 것이라는 기본가정이 긍정되었다.

네째, 대처방안의 사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지재구조화 방안과 자아존중감 간에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처방안과 우울과의 관계는 심리적긴장관리 방안과 인지재구조화 방안만이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대처방안과 불안과의 상관관계도 심리적긴장관리 방안과 인지재구조화 방안에서만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복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 또는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처방안의 각 영역들을 대처방안의 사용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대처방안과 역할갈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역할간상황수정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부모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부부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 직업역할갈등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와 사회적지원 방안의 사용정도에 따른 부부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직업역할갈등과 불안, 부모역할갈등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서 가설이 긍정되었다.

이로써 역할갈등은 심리적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대처방안은 심리적복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모두 검증되었으며, 대처방안이 역할갈등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또는 감소시킨다는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가설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전문직 취업주부가 대처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중다역할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수가 비교적 적고 편의 표집에 의해 표본을 추출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전문직 취업주부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또한 스트레스원으로 이용된 역할갈등척도가 전문직 취업주부가 가질 수 있는 역할갈등의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종속변수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심리적 안녕, 또는 정신건강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복지와 유사한 변수들을 사용한 몇 편의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해 본 것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전반적인 정서적 평형상태인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는 복잡한 현대사회

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중요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강수금(1986). 스트레스 질환자와 정상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권 1호.
- 5) 김영규(1980).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의 비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재활*, 36. 한국장애자재활협회.
- 7) 김정옥·박순희·조외점(1989). 가족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새마을연구논문집, 9. 효성여대 새마을연구소.
- 8) 김정옥·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6.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9) 배종열(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영희(1985). 가족스트레스와 대처. *사회복지연구*, 13.
- 11) 장병옥(1985).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정민자(1984).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정태경(1972).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응반응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채기화(1989). 스트레스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Andrews, F.A. & Withey, S.B.(1974).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 18) Andrews, F.A.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in America : The development and measurement of perceptual indicators. New York : Plenum.
- 19) Aneshensel, C.S. & Pearlin, L.I.(1987). Structural contexts of sex differences in stress. In R.C. Barnett, L. Biener and G.K. Baruch (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 Free Press.
- 20) Barnett, R.C. & Baruch, G.K.(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 21) Barnett, R.C. & Baruch, G.K.(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R.C. Barnett, L. Biener and G.K. Baruch(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 Free Press.
- 22) Baruch, G.K. & Barnett, R.(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23) Baruch, G.K., Biener, L. & Barnett, R.C.(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
- 24) Bebbington, A.C.(1973). The function of stress in the establishment of dual-care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 25) Bird, G.W. & Bird, G.A.(1986). Strategies for Reducing Role Strain in Dual-caree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for the Family*, 16.
- 26) Bird, G.W. & Ford, R.(1985). Sources of Role Strain among Dual-career Coup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 27) Burke, R.J.(1988).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Work-Family Conflict.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 28) Chacko, T.I.(1983). Job and life satisfactions : A causal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 29) Cowan, C.P. & Cowan, P.A.(1988b). Who does what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marriage. In M.B. Sussman & R. Palkovitz(ed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 30) Crosby, F.J.(ed.)(1987). Spouse, Parent, Worker. New Haven : Yale University.
- 31) Crossman, D.K.(1984). Dual-career Mothers and Multiple Role Satisfaction : Self-esteem, Mastery of Environment and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32) Dytell, R.S. & Schwartzberg, N.S.(1986). Work and family stress and strain outcomes among male and femal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York.
- 33) Elman, M.R. & Gilbert, L.A.(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Family Relations*, 33.
- 34) Fuchs, R.(1971). Different meanings of employment for women. *Human Relations*, 24.
- 35) Gilbert, L.A., Holahan, C.K. & Manning, L.(1981). Coping with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and Maternal Roles. *Family Relations*, 30.
- 36) Gore, S. & Mangione, T.W.(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 37) Gove, W.R. & Tudor, J.(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38) Greenhaus, J.H.(1988).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Issues.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 39) Greenhaus, J.H. Parasuraman, S.(1986). A work-nonwork interactive perspective of stress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8.

- 40) Gupta, N. & Jenkins, D.(1985). Dual-career Couples. In T.W. Beehr & R.S. Bhagat(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in Organization. New York : Wiley.
- 41) Hall, D.T.(1972). A Model of Coping with Role Conflict : The Role Behavior of College Educated Wome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42) Haw, M.A.(1982). Women, work and stress : A review and agenda for the fut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 43)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 44) Holmstrom, L.L.(1973). The Two-Career Family. Cambridge, MA : Schenkman
- 45) Houseknect, S.K. & Macke, A.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46) Kessler, R.C. & McCrae, J.A.(1981). Tr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 1957-197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 47) Kline, M. & Cowan, P.A.(1988). Rethinking the Connections Among Work and Family and Well-Being. In E. Goldsmith(ed.). *Work and Family : Theory, re- 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3.
- 48) Kopelman, R.E., Greenhaus, J.D. & Connelly, T.F. (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 49) Lazarus, R.S.(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ness.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50) Levine, M.F., Taylor, J.C. & Davis, L.E.(1984). Defining quality of working life. *Human Relations*, 37.
- 51) McCubbin, H.(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52) McCubbin, H., Joy, C., Caubl, A., Comeau, J., Patterson, J. & Needle, R.(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53) McCubbin, H.I. & Patterson, J.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I. McCubbin, M.B. Sussman & J.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Haworth Press.
- 54) McGrath, J.E.(ed.)(1970).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tress*. Holt, Rinehart and Winston.
- 55) Moen, P.(1982). The two-provider family : Problems and potentials. In M.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56) Moore, K., Spain, D. & Bianchi, S.(1984). Working wives and mothers. *Marriage and Family Review*, 7.
- 57)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58) Pearlin, L.(1975). Sex roles and depression. In N. Datan(ed.).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Normative life crises*. New York : Academic Press.
- 59)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 60) Pistrang, N.(1984). Women's work involvement and experience of new mother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61) Poloma, M.M.(1972). Role conflict and the married professional woman. In C. Safilios-Rothschild (ed.). *Toward a Sociology of Women*. Lexington, MA : Xerox.
- 62) Rapoport, R. & Rapoport, R.N.(1971). *Dual Career Families*.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 63) Rapoport, R. & Rapoport, R. N.(1977). Dual-career families re-examined. New York : Harper Colophon.
- 64) Rapoport, R.N. & Rapoport, R.(1978). *Dual-Career Families : Progress and Prospects*. *Marriage and Family Review*.
- 65) Ross, C.E., Mirowsky, J. & Huber, J.(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 Mar-

- 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 66) Safilios-Rothschild, C.(1970). The influence of the wife's degree of work commitment upon some aspects of family organization and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67) Schwartzberg, N.S. & Dytell, R.S.(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 68) Sekaran, U.(1983). How husbands and wives in dual-career families perceive their family and work wor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 69) Sekaran, U.(1986). *Dual-career Families*. San Francisco : Jossey-Bass.
- 70) Skinner, D.(1983). *Dual-Employed Famies : Coping & Adapt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71) Staines, G.L., Pleck, J.H., Shepard, L.J. & O'Connor, P.(1978). Wives' employment status and marital adjust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 72) Stewart, A.J. & Salt, P.(1981). Life stress, life-styles, depression and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 73) Thoits, P.A.(1984). Multiple identities : Explaining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i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Self and Identity Conference. Cardiff, Wales.
- 74) Veit, C.T. & Ware, J.E. Jr.(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 75)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 76)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 77) Wan, T.H., Odell, B.G. & Lewis, D.T.(1982). *Promot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 A Community Diagnosis*. New York : The Haworth Press.
- 78) Warr, P. & Parry, G.(1982). Paid employment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

